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79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2학년도 수능 독서 18~23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줍이 쳐.

[A]

떡엄 떡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B]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술래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그넷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앞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C]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D]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E]

- 이육사, 「초가」-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털**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앓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  
하여 말하였다.

“땅이 낡고 하늘이 기르느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들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전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  
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한테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낡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낡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  
는가?”

- 이육, 「담초(談艸)」-

\*요황과 위자 :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난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이 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21.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즐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움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22.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폼’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좁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